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 개인내 태도구조의 발달

이수원¹⁾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태도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단일차원상에서 양극에 위치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왔다. 그리하여 이 두 태도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태도의 관계가 양극적인가 또는 이원적인가에 관한 이와같은 논쟁이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인들의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이 두 태도의 관계를 양극구조로서 표상하지만 조망이 확대되어 있을 때는 이원구조로서 표상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조망의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인식차원도 바뀐다고 가정하였다.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만 조망이 확대될 때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우리가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두가지의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양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양적 변화는 단일차원상에서의 위치의 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적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태도의 양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질적 변화는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차원간의 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

떤 대상을 단일가치에서 지각하다가 다원가치에서 지각하게 되는 것은 태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양적 변화만을 다루었다. 태도 연구자들이 태도변화를 이렇게 양적으로만 다루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가정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중에 하나는 태도변화 과정을 설득과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Aristotles는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설득을 통해서 태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밝혔다. 그는 효과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설득자, 설득 메시지, 및 피설득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이 연구는 94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장성수 교수, 나은영 교수, 구정숙 선생, 이석재 선생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실에서 헌신적으로 실험을 도와준 박광엽, 김태준, 강제연, 이해경에게 감사한다.

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그의 생각은 태도변화 과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ovland, Janis, & Kelley, 1953).

그런데 태도변화 과정을 이렇게 설득과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태도의 변화가 설득자의 일방적인 영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게 만든다. 설득자가 설득 메시지를 통해서 피설득자를 설득함으로서만 태도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게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과정에서 태도변화는 자연히 피설득자의 태도가 설득메시지의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였는가를 가지고 지표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태도변화가 이렇게 피설득자에 대한 설득자의 일방적인 영향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태도변화는 개인간이나 집단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태도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설득과정에서처럼 일방적인 영향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적인 영향관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태도변화도 한쪽이 다른쪽에 굴복하는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양쪽이 서로 타협하거나 또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리는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다.

태도개념은 그동안 학자에 따라 실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최초로 태도의 측정을 시도한 Thurstone(1931)은 태도를 심리적 대상에 대한 우호적 또는 적대적 감정(affect)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태도의 측정장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에 인지반응이론의 선구자인 Greenwald(1989)에 의해서 다시 천명되었다. 그의 정의에서는 태도를 심리적 대상과 연합된 정적(positive) 또는 부정(negative) 감정으로 규정하였다. 태도개념은 원래 개인차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정적 태도로부터 부정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태도개념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태도개념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와같은 다양한 태도를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양극으로 하는 단일차원상에 나열하였다. 그리하여 태도에서의 개인차를 이 차원상에서의 위치의 차이로 양적으로 환원시켰다. 그런데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이렇게 단일차원상의 양극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이 두 감정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배타적 관계는 어떤 태도대상에 대해서 정적 감정을 가질 수록 그만큼 부정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두 감정을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이라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Kerlinger(1984)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태도가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태도형성의 준거신념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양쪽이 태도를 형성하는 준거신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두 태도는 주어진 태도대상을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정적태도와 부정태도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Cacioppo와 Berntson(1994)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의 관계가 서로 상반된 관계로 나타나는가 또는 독립적 관계로 나타나는가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한쪽 감정이 활성화될 때 다른쪽 감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두 감정의 관계가 양극구조로 나타나게 되지만, 양쪽 감정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이원구조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서는 언제 한쪽 감정만이 활성화되며, 언제 양쪽 감정이 활성화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본 고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하였다.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 대한 양극구조 모델과 이원구조 모델이 각각 적용되는 조건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이 개인의 태도의 발달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양극구조로서 표상하지만 조망이 확대될 때는 이원구조로서 표상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태도의 차원표상이 조망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동안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수없이 다루어졌지만 태도의 '발달'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agly와 Chaiken(1993)은 태도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로서 태도의 발달연구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사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에서 태도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태도도 그것이 주위환경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반응양식 중에 하나라면 필연적으로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보아야 한다. 태도의 기능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mith, Bruner & White, 1956).

그렇다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태도 대상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개인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한 대상에 대해서 개인마다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태도가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고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개인마다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태도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낳은 '편파된 지각'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태도는 주어진 대상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빚어진 주관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도를 발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태도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달이론가들은 아동의 인지가 조망의 확대를 통해서 자아중심적 단계에서 탈중심적 단계로 발달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태도대상에 대한 지각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자아중심적 단계로 부터 조망의 확대가 일어난 탈중심적 단계로 발달해 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태도의 두 차원표상

태도의 차원표상(dimensional representation)은 개인의 태도를 태도차원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어떤 차원상에서 표상하는가? 태도의 차원표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양극구조 즉, 일차원적 양극구조(unidimensional bipolar structure)를 지지하는 입장과 이원구조 즉, 이차원적 단극구조(bidimensional unipolar structure)를 지지하는 입장의 두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극구조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단일차원상에서 양극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배타적인 것으로 본다. 여기서 상반성(reciprocity)이란 두 태도가 역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한편 이원구조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주어진 대상을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얻어지는 두 모습으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태도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정적 태도와 부

< 양극구조 >

정적 태도 ————— 부적 태도

< 이원구조 >

정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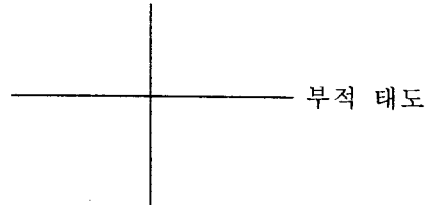


그림 1. 태도의 두 차원표상

적 태도를 어떤 차원구조로서 표상하는 것인가? 태도 연구가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온 견해는 사람들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구조로 표상한다고 보았다. 그동안 개발된 모든 태도측정기법에서 개인의 태도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의 하나의 점으로 대표되었다. 태도측정기법에서 선구적 업적을 쌓은 Thurstone(1931)은 양극적 평정척도(bipolar rating scale)상에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양극적 평정척도는 한쪽 극단이 부적 감정으로 대표되며 반대쪽 극단이 정적 감정으로 대표되는 연속선(continuum)을 지칭한다. 그는 이 연속선 위에서 모든 개인들의 태도를 나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같은 시도는 그 이후에 개발된 태도측정기법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태도 측정기법들에서 개인의 태도를 양극적 평정척도에서 측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Cacioppo와 Berntson, 1994).

그의 이같은 시도는 태도의 이론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Allport(1935)는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나서 태도의 양극성 즉, 정

적 감정과 부적 감정의 상반성(reciprocity)은 태도개념의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Sherif와 Sherif(1967)도 태도의 차원표상을 양극구조로서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태도척도에서 제시되는 태도진술(attitudinal statements)들에 대해서 새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가 수용하는 진술들(수용범위), 거부하는 진술들(거부범위) 및 수용도 거부도 하지 않는 진술들(비관여범위)로 나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태도구조에는 수용하는 진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수용범위와 거부범위는 호오차원상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되며 비관여 범위는 위의 두 범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태도의 도식구조(schema structure)를 정보처리과정으로 분석한 Judd와 Kulik(1980)도 사람들이 태도를 양극적 도식에 입각해서 개념화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할 때 자기 자신의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는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빠르게 처리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피험자들에

게 여러가지 태도진술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은 중립적 진술보다 더욱 빠르게 처리하였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자기의 태도를 지지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의 태도를 반박하는 정보도 신속하게 처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인의 태도의 도식구조가 지지정보와 반박정보의 양극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Hymes(198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피험자와 반대하는 피험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피험자보다 낙태에 찬성하는 정보와 반대하는 정보를 모두 더 잘 처리하였다. 피험자들은 자기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정보도 잘 처리함으로써 태도의 도식구조가 양극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태도의 차원표상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Kerlinger(1984)는 태도의 구조가 양극적이라는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서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태도가 대립되는 사람들 간에서는 그들의 준거신념들(criterial belief)도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보수주의자는 지식함양, 인격도야 및 문화전수와 같은 것을 준거로 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개인적성, 아동중심 및 사회적응과 같은 것을 준거로 하여 태도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보수주의자의 준거신념들은 자유주의자에게는 준거가 되지 못하였으며 이와반대로 마찬가지였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서로 다른 준거신념에 기초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태도의 차원구조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처럼 양극적(bipolarity)이 아니고 이원적(duality)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양극적'이란 일차원적 양극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이원적'이란 이차원적 단극구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태도의 차원표상을 양극적으로 보는 것은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의 두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태도간의 대립이 양극적이 되려면 이 두 태도가 동일한 준거신념에 기초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동일한 준거에 기초해서 형성되었을 때 이 두 태도가 단일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다른 준거에 기초해서 형성되었다면 이 두 태도는 양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원적으로 양립되는 것이다. 준거가 서로 다른 두 태도는 한 태도대상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나타나는 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와같은 두 모습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양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태도형성의 준거신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두 태도간의 대립은 그 본질이 양극적이라기 보다는 이원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와같은 생각은 원래 태도의 차원표상 문제를 개인내 구조(intra-individual structure)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 개인간 구조(inter-individual structure)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간에 준거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간의 대립이 이원적이라고 본 것은 개인간 수준에서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태도의 구조를 개인간 수준에서 다룰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내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태도가 어떻게 표상되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Eagly와 Chaiken(1993)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간 태도구조와 개인내 태도구조는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인간 태도의 차원표상이 이원적이라고 해서 개인내 태도의 차원표상도 이원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Judd와 Krosnick(1989)은 개인간에서 나타나는 태도구조가 개인내의 태도구조에 타당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

적으로 밝혔다. 사실 한 개인내에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의 두 태도는 오히려 Kerlinger의 예언과는 반대로 양극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보수주의 신념과 자유주의 신념중에 어느 한쪽 신념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가 보수주의자일 때는 보수주의 신념에 준거해서 그리고 그가 자유주의자일 때는 자유주의 신념에 준거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들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념중에 한쪽 신념에만 준거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는 두 태도는 양극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수준에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태도가 동일한 신념에 준거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신념에 준거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전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자유주의 신념에 준거하게 되면 이와 반대가 된다. 따라서 개인내에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태도가 양극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태도의 차원표상에 대한 Kerlinger(1984)의 생각은 개인간 구조에서는 적절하지만 개인내 구조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보아야 한다. 그가 밝힌 태도가 대립될 때 그들의 준거신념이 다르다는 사실은 개인내에서 태도구조가 이원적임을 밝혀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양극적임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내의 태도구조도 이원적이 될 때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 Katz와 Hass(1988)는 흑인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조사에서 이와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미국인들은 흑인에 대해서 양가감정(ambivalent affect)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인들은 흑인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을 동시에 함께 갖고 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이와같이 양가감정을 갖게 된 원인을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미국인들은 흑인에 대해서 '청교도정신'과 '박애사상'의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청교도정신에 준거해서 흑인을 평가할 때는 흑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이 되는 반면에, 박애사상에 준거해서 평가할 때는 호의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흑인에 대한 태도를 정적 태도척도(흑인을 호의적으로 진술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와 부정적 태도척도(흑인을 비호의적으로 진술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두 척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나서 태도와 가치간에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 결과 흑인에 대한 정적 태도는 박애사상과만 상관이 있었으며 청교도 정신과는 상관이 없었다. 반면에 흑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청교도 정신과만 상관이 있었으며 박애사상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흑인에 대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준거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적 태도는 박애사상에 준거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부정적 태도는 청교도 정신에 준거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는 이원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양극적으로 대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서 두 태도가 서로 독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와같은 결과는 Patchen, Hoffman 및 Davidson(1976)이 흑백인종 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40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인종에 관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차라리 인종에 대한 태도에서 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독립적 요인임이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인종에

관한 태도에서 정적 평가과정과 부정적 평가과정간의 이와같은 독립성이 이들 두 과정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인종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행동은 개인적인 적대감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인종태도와 같은 변인에 의해서 예언이 되는 반면에 긍정적인 행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경험한 인종간의 접촉기회와 같은 변인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달랐다.

최근에 Schofield(1991)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는 흑인과 백인학생간에 긍정적 교류를 증대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들간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 원인을 인종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과 부정적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결과는 인종간에 긍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이론이나 연구들을 가지고는 인종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의 기원을 결코 완전하게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최근에 구정숙(199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기능적 기반이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친미 태도는 가치표현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반미 태도는 효용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험자들에게 '민주주의 가치'와 같은 가치표현 기능에 입각해서 여러 국가들을 평가시킨 후 미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게 되면 친미 태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적 이해관계'와 같은 효용기능에 입각해서 평가하게 하면 반미 태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친미 태도와 반미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관계가 양극적이 아니며 이원적이라는 사실은 인종간의 편견에

대한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혈이나 장기기증과 같은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Parsi와 Katz(1986)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정적 태도척도(장기기증을 지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와 부정적 태도척도(장기기증을 반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같은 피험자들에게 이 두 척도를 실시한 결과 두 태도 척도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태도가 독립적 관계임이 드러났다. 피험자들의 장기기증 행동도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두 태도 중 어느 하나의 태도만 가지고는 예언이 되지 않았다. 두 태도를 함께 고려해야 예언되었다. 장기기증 행동은 정적 태도는 강하며 부정적 태도는 약한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적 태도가 강하더라도 부정적 태도도 강할 때는 장기기증 행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적 태도의 효과는 부정적 태도가 약할 때만 나타났다.

정적 평가과정과 부정적 평가과정이 독립적이라는 증거는 기분, 감정 및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얻어졌다. Watson과 Tellegen(1985)은 기분과 관련된 어휘들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긍정적 기분을 나타내는 어휘와 부정적 기분을 나타내는 어휘가 독립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긍정적 어휘들과 부정적 어휘들이 서로 별개의 요인으로 묶이었다. 한편 Goldstein과 Strube(1994)는 학생들에게 성공과 실패 피드백을 주었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이 성공하였다고 믿게 하였을 때는 긍정적 감정이 고양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자신이 실패하였다고 믿게 하였을 때는 부정적 감정이 고양되었다. 그러나 긍정적 감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리하여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간의 상관관계를 내어 본 결과 유의한 상관을 얻지 못했다. 즉,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독립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수원과 이영훈(1989)은 태도변화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태도의 면역기제에 관한 연구에서 '이닦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긍정적 정보만을 갖고 있는 태도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부정적 정보를 주고 이를 반박하게 한 집단은 긍정적 정보를 주고 이를 옹호하게 한 집단보다 설득에 더 저항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그 원인이 부정적 정보를 접한 반박집단에서 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반박집단에서는 이닦기의 부정적인 설득메시지를 받은 후 이안닦기에 대한 태도는 설득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이닦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다. 반면에 옹호집단에서는 이닦기에 대한 태도와 이안닦기에 대한 태도가 모두 변화되었다. 옹호집단에서는 이닦기와 이안닦기에 대한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양극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 태도가 변화되면 다른 쪽 태도도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반면에 반박집단에서는 이 두 태도를 서로 독립된 것으로서 이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인 이안닦기에 대한 태도만이 변화되고 이닦기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또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항상 단일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이 두 감정이 이원적으로 양립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연구된 태도 측정기법들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제작된 태도 측정기법들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태도를 양극적 평정척도 위에서 측정하였다. 따라서 태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나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양극적 척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태도가 양극구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것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양극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보게 된 또 다른 이유중에 하나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를 들 수 있다.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양립하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모순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Thompson, Zanna 및 Griffin(1994)은 태도질문지에서 정적 태도문항과 부정적 태도문항을 인접해서 물을 때에는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때보다 두 문항간의 역상관이 크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가깝게 놓여 있을 때는 두 문항을 보다 양극적으로 본다. 그들은 이 결과를 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의 비밀관성을 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정적 문항에 찬성하고 나서 부정적 문항에도 찬성하면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태도반응에서의 이와같은 일관성의 지향은 그동안 Heider(1958)의 균형이론이나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이론 등의 인지일관성 이론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대립된 것으로 보려는 사람들의 경향성은 매우 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개인의 태도의 차원 표상이 양극구조인지 또는 이원구조인지가 아니고 언제 양극구조 또는 이원구조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Pratkanis(1989)는 태도의 도식구조가 태도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그리하여 찬반이 분명히 갈라지는 주제들(예, 원자력 발전이나 낙태)은 양극적 태도구조를 지니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들(예, 스포츠나 음악)은 단극적 태도구조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양극적 태도구조란 태도의 도식구조 속에 자기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들, 신념들 및 기대들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단극적 태도구조란 단지 자기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쪽 입장에 관한 정보만을

도식구조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반대하는 입장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관해서 자기가 찬성하는 쪽의 지식이 반대하는 쪽의 지식보다 더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양쪽 정보를 모두 갖게 되지만 그렇치 못한 주제에 대해서는 한쪽 정보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태도의 도식구조를 다룬 것으로서 태도의 차원표상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를 통해서 태도의 차원표상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양극구조 또는 이원구조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조망축소와 양극적 차원표상

개인의 태도의 차원표상이 양극적인가 또는 이원적인가에 관해서 학자들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을 앞 절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는 원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 두 태도의 관계는 양극적인가 또는 이원적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태도의 차원표상을 개인간 수준에서 접근하는가 또는 개인내 수준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인간 수준에서는 태도의 구조가 이원구조를 갖는 반면에 개인내 수준에서는 양극구조를 갖는 것이다.

개인간 수준에서 태도의 구조가 이원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준거에 기초해서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준거가 서로 다른 두 태도는 상호 독립적이다. 왜냐하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주어진 태도대상을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얻어지는 두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모습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서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간 수준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서 이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개인간 수준에서 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부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간에 태도형성의 준거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은 최근 10년 동안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 나은영(1994)의 연구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앞 절에서도 인용한 Kerlinger(1984)의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간에 준거신념이 다르다는 연구를 위시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나타났다. 최근에 Tourangeau, Rasinski 및 D'andrade(1991)는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진술들을 유사성에 기초해서 분류하도록 한 자료를 위계적 군집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도가 대립될 때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복지제도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복지제도 때문에 이들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려는 안이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믿었다. 반면에 복지제도를 찬성하는 학생들은 가난을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잘못된 경제구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복지제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그들의 준거신념이 서로 판이하게 달랐다.

Kristiansen과 Zanna(1988)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18가지 가치 목록을 제시해 주고 각각의 가치가 주어진 태도주제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를 평정시켰다. 그런데 찬성태도와 반대태도간에 가치의 관련성에 대한 평정이 달리 나타났다. 예컨대, 핵무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안전'이나 '편안한 삶'가치를 핵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삶의 지혜'나 '참된 우정'가치를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이수원과 김태준(1990)은 고등학

교에서 선후배간의 구타사건에 대해서 선배와 후배의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배역할이 부여된 집단은 주어진 사건을 '기강'이 서 있는가 아닌가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반면에 후배역할이 부여된 집단은 '인격'이 존중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선배에게 기강을 확립시키는 행위로 평가된 것이 후배에게는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후배에게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로 평가된 것이 선배에게는 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연구 이외에도 태도가 대립되는 두 집단(예, 흡연자 대 금연자, 흑인 대 백인)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태도대상(예, 흡연, 소수민족 차별철폐)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양한 태도주제에서 얻어졌다(van de Plight와 Eiser, 1984; Kluegel과 Smith, 1986). 이렇게 볼 때 태도가 대립될 때에는 그들간에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준거 또는 조망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원래 이렇게 이원적인 것이라면 왜 개인내에서는 이를 양극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조망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적태도의 준거만을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며 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적 태도의 준거만을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태도형성의 준거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의 준거에만 의거하여 태도대상을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내 수준에서는 정적 태도의 준거와 부적 태도의 준거중에서 한쪽 준거에만 의존하여 태도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적 태

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태도대상을 지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준거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입장이나 역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한 순간에 한쪽의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 '선생'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될 수 없으며, '남편'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상호 규정관계에 있는 역할관계에서는 한 개인이 양쪽 역할에 동시에 설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한 순간에는 한쪽 역할에만 소속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그의 '조망'이 되어 그의 지각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입장이나 역할이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그의 조망이 된다는 것은 Turner(1985)의 자기범주화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세상을 인식할 때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항상 '인식의 틀'이 된다. 자기가 '도구'가 되어 세상이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조망'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는 이 '자기'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로서 개인의 성격, 지식, 및 신체적 특징과 같은 그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들로 부터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정체(social identity)로서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범주의 구성원 중의 일원으로서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전자는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유별나다"와 같이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자아정체인 반면에 후자는 "나는 의사이다", "나는 남자이다"와 같이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범주와 관련된 자아정체이다.

그런데 그는 개인의 자아정체가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체로 동일시될 때도 있고 사회정체로 동일시 될 때도 있다고 보았다. 전쟁중에 적군과 만났을 때는 '적군'과 구별되는 '아군'으로서의 사회정체로 자기를 동일시하

지만, 길거리에서 친구와 만났을 때는 ‘너’와 구별되는 ‘나’로서의 개인정체로 자기를 동일시 한다. 여기서 개인의 자아정체가 개인정체와 사회정체 중 어느 것으로 동일시되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요지이다.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정체로 동일시될 때에는 개인정체로 동일시될 때에 나타나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은 사라지고, 몰인격적이고 탈개인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가 맡은 역할이나 범주의 이해관계이다. 역할이나 범주의 이해관계가 곧 개인의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순간에는 개인은 역할이나 범주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그가 속한 역할이나 범주에 의해서 구속된다. 그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에 따라 대상에 대한 그의 지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존재’가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식’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개인은 그가 맡은 역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역할의 ‘대행자’이다. 자기가 맡은 역할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대상을 지각하고 그에 쫓아 행동하는 꼭두각시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받아드리지 않는다. 자기를 역할 연기자로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역할에서 부여된 행동을 실제 자기의 ‘의지’에 쫓아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Turner(1985)의 말을 빌리면 개인정체로서의 ‘자기’가 아니고 사회정체로서의 ‘자기’를 가리킨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사회정체로서 자기를 동일시할 때는 자기가 역할이나 범주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역할이 곧 ‘자기’가 된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역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자기에게 부여

된 역할의 대행자가 되어 행동하면서도 자기의 의지에 쫓아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정체로 동일시되어 있을 때에만 그러한 것이다. 개인정체로 동일시될 때는 역할과 자기를 분리시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행동을 역할연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 드리게 된다.

태도는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정체로 동일시되어 있을 때 갖게되는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이다. 사회정체에서의 이해관계가 ‘조망’이 되어 대상을 지각할 때 갖게되는 감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태도에는 ‘사회’가 반영되어 있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태도개념은 원래 개인차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태도개념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간에서의 견해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태도는 ‘개인간 수준’ 즉, 사회적 수준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찌기 Thomas와 Znaniecki(1918)는 태도를 사회적 세계가 개인에게 반영된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태도가 개인적 성향의 반영이 아니며 사회적 환경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도 동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범주가 태도형성에서 조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관한 연구들과 관련되어 그동안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태도형성에서 준거집단의 영향은 Newcomb(1943)의 연구에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보수적 가정에서 자라나 고등학교까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던 여학생들이 진보적 대학에 들어감으로 그들의 태도가 진보주의적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진보적 태도가 25년 후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같은 준거집단의 영향은 정치적 태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성개방이나 마리아나와 같은 것에 대

한 태도에서도 준거집단의 영향이 나타났다. Walsh, Ferrell 및 Tolone(1976)은 성개방 태도에서 동료 집단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Kandel(1978)은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들 간에 준거집단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준거집단 구성원들의 태도는 이전보다 서로 더 유사하게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Liebermann(1950)은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전에 가졌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Sokol과 Louis(1984)도 생활방식에서의 변화가 태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을 내놓았다. 결혼 전에 집을 떠나 혼자 사는 처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처녀보다 성역할에 대해서 더 개방화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은 직장을 갖지 않은 여자보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평등을 더 주장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태도개념이 왜 사회속의 개인을 다루는 사회심리학에서 그토록 오래동안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태도에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태도는 사회적 산물이다. 개인을 통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 즉,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함으로써 역할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조망이 될 때 갖게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연구들에서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입장이나 역할에 처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도대상을 지각할 때 그들이 처한 역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각이

편파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 그것 자체가 바로 사회정체로서의 '자기'가 되기 때문이다. 태도대상을 지각할 때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항상 '인식의 틀'이 된다. 자기가 '도구'가 되어 대상이 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식의 틀로서의 '자기'는 직접 의식되지 않는다. '인식의 틀'인 '내'가 '나'를 인식할 수는 없다. 마치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식의 대상은 항상 자기 밖의 '대상'이 된다. 인식의 주체인 '자기'는 인식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절대화(absolution)가 일어난다. 대상을 지각할 때 '자기'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실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이수원,1994).

태도에서 인식의 '절대화'는 주어진 태도가 자신의 '인식의 틀' 즉, 조망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태도대상 자체가 원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개인의 태도는 그가 속한 역할의 이해관계를 조망으로 하여 대상을 지각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입장에 처하는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개인의 태도가 그의 조망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고, 태도대상 자체가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태도에서의 인식의 절대화이다. 사실 개인의 태도는 바로 이와같은 인식의 절대화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그 대상에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태도의 기능이론자들은 사람들이 태도를 갖는 이유가 그것이 그들에게 이용가치(utilitarian value)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적 태도를 갖는가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적 태도를 갖게 되며, 그렇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사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적 태도를 갖고 다른 사람은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태도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빚어지는 주관적 감정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의 절대화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얻어진 것임을 모른다. 태도대상이 원래 그와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와같은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태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얻어진 산물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자기의 태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자기의 태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를 때 야기된다. 이 때에는 자기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를 절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또한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두 태도중에 한쪽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게 된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거나 또는 그와 반대이거나 간에 한쪽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옳다-그르다' 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대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양

자를 옳다-그르다나 좋다-나쁘다 차원에서 대립된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태도 대상을 한쪽 조망에서만 바라본다는 것 자체속에 이미 이와같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대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조망 자체가 '옳다-그르다'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수원과 박영식(1988)은 학생의 복장에 대한 태도에서 교복 지지자는 '질서' 가치가 조망이 되는 반면에 사복 지지자는 '개성' 가치가 조망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질서'가치는 질서없다-질서있다 차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질서없다'는 나쁜것인 반면에 '질서있다'는 좋은 것이다. 따라서 질서없다-질서있다 차원은 결국 '나쁘다-좋다'나 '그르다-옳다'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성'가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복과 사복을 이렇게 한쪽 가치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두 대상 중에 어느 하나는 '좋고 옳은 것'이 되며 다른 것은 '나쁘고 그른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질서' 가치에서 보게 되면 교복은 좋은 것이며 사복은 나쁜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개성' 가치에서 보게 되면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개성가치에서 보게 되면 교복은 나쁜 것이며 사복은 좋은 것이다. 그럼으로 전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정적 태도에 '찬성'을 하면 부정적 태도에 '반대'를 하며, 이와 반대로 정적 태도에 '반대'를 하면 부정적 태도에 '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두 태도를 양극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양극에서 대립된 것으로 표상하는 원인은 이 두 태도를 한쪽 '조망'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망확대와 이원적 차원표상

앞 절에서 사람들이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보는 이유가 조망이 축소되어 태도대상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식의 '절대화'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태도를 태도대상 자체가 원래 그러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갖게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인식의 절대화는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얻어진 것임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를 절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대립되면 두 태도중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반드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두 태도를 옳고 그름의 시비차원에서 양극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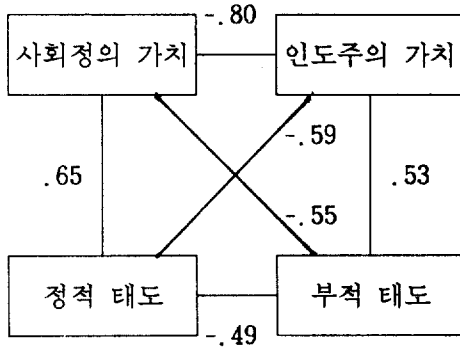
그런데 그동안 발표된 여러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태도대상을 이렇게 자신이 처한 한쪽 입장에서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입장에서도 지각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Katz 와 Hass(1988)의 연구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양가감정을 갖는 이유가 흑인을 두 가지 가치에 입각해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청교도 정신에 준거할 때에는 흑인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갖는 반면에 박애사상에 준거할 때에는 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보았다. Tetlock(1989)은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간의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평등' 가치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 가치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는 개인에 따라서는 양쪽 가치를 모두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온건한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그와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그는 이와같은 경향성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분석한 자료에서 선거 캠페인 중에는 한쪽 가치에 입각해서 주로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단 권좌에 오른 후에는 양쪽 가치를 모두 참작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그는 실험연구를 통해서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수립하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조건에서는 그와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양쪽 가치에 입각해서 보다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렇게 볼 때 태도가 한쪽 조망에 준거해서 형성되는가 또는 양쪽 조망에 준거해서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또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최근에 수행한 이수원(1994)의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회정의'와 '인도주의'의 양쪽가치를 갖고 바라보는 다원가치집단과 두 가치 중 어느 한쪽 가치만을 갖고 바라보는 단일가치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두 집단에서 준거가치와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다원가치집단의 결과는 위에서 인용한 Katz 와 Hass(198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사회정의의 가치는 정적 태도와만 상관이 나왔으며, '인도주의' 가치는 부정적 태도와만 상관이 나왔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적 태도는 사회정의에 준거해서 형성되며, 부정적 태도는 인도주의에 준거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간에 상관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다원가치집단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이원적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가치집단의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회정의'가치와 '인도주의'가치가 양쪽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의' 가치는 정적 태도와 정상

< 단일가치 집단 >



< 다원가치 집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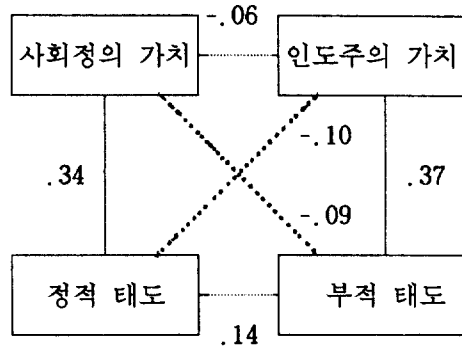


그림 2. 다원가치와 단일가치 집단에서 가치와 태도간의 상관관계
(실선은 유의한 상관관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

관이 나오며 부정 태도와는 역상관이 나와 두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인도주의' 가치에서도 방향만 다를 뿐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들은 양쪽 가치중에서 한쪽의 가치에 준거해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의 두 태도를 모두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정의' 가치에 준거하면 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부정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인도주의' 가치에 준거하면 이와 반대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간의 역상관이 높게 나온다는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단일가치 집단에서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를 양극적인 관계로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의 태도의 차원구조가 양극적인가 또는 이원적인가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다원가치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상황에서는 태도의 차원구조가 이원적이 되지만 단일가치를 갖고 있는 개인

이나 상황에서는 양극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신념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태도의 하위구조로서의 신념구조는 개인마다 그 복잡성에서 차이가 있다. 신념복잡성(belief complexity)은 보통 어떤 태도대상에 대해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들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다차원성은 한 개인이 갖고있는 개개의 신념들이 얼마나 다양한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Linville(1982)은 신념복잡성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복잡한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차원적 의미공간에서 대상을 지각하는 반면에 단순한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은 일차원적 의미공간에서 지각한다. 따라서 이들간에 대상에 대한 태도도 달리 나타났다. 복잡한 신념을 가진 사람일 수록 태도가 중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신념복잡성과 태도의 관계는 그 이후 Judd와 Lusk(1984)에 의해서 재분석되었는데 이

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들간의 이질성의 정도 즉, 개개의 신념들이 얼마나 독립된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이 양자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개인의 신념구조가 이질적인 신념들로 구성되었을 때는 신념복잡성의 증가가 태도의 중립화를 초래하지만, 동질적인 신념들로 구성되었을 때는 오히려 신념복잡성의 증가가 태도의 극단화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때 신념복잡성의 핵심적 속성은 신념들의 갯수가 아니며 신념들간의 이질성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수원(1983)은 어떤 태도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들간의 이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태도내변산(attitudinal variability) 개념을 제시하였다. 태도내변산은 개인의 신념구조 속에 호오값(favorableness value)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신념들이 얼마나 많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측정되었다. 태도내변산이 클 수록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도가 큰 것이다. 따라서 태도내변산이 클 수록 개인의 태도도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태도내변산이 큰 사람은 그의 태도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보다 잘 변한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때 개인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구조의 복잡성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중에 어느 한쪽 신념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양쪽 신념을 모두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신념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개인의 신념구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결과는 차재호, 구정숙, 나은영 및 정지원(1987)의 연구에서 얻어졌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반미시위가 격렬했던 시기에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를 6개월 동안 네번에 걸쳐 종단적으

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친미 신념에서는 변함이 없는 데 반미신념들이 새로이 첨가되는 형태의 신념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피험자들의 신념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누적적으로 변화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의 신념구조속에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서 이와같은 신념구조의 변화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념은 태도형성에서 직접적인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태도가 신념에 준거해서 형성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기대가치이론을 비롯하여 많은 이론들에서 지지되었다(Fishbein 과 Ajzen, 1975).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위의 연구들에 나타난 것처럼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을 공유하게 되면 그가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도 함께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개인내에서 서로 상반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공존될 수 있는가?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는 원래 대립관계에 있는 쌍방이 각기 한쪽씩 갖고 있는 태도들이다. 이것들이 어떻게 한 개인내에서 공존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태도대상의 지각에서 조망의 '확대'가 일어나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개인내 태도의 차원표상이 이원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은 모두 조망확대의 산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교도 정신'과 '박애사상'의 두 가치를 함께 가지고 흑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한 개인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는 연구나, '인도주의'와 '사회정의'의 두 가치를 함께 가지고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한 개인내에 공존하게 되었다는 연구는 모두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공존이 조망확대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각각 상이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바침 해주고 있다.

한편 신념복잡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 개인내에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결과는 조망의 확대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념은 조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도대상 흡연을 '건강'이라는 가치에서 보게 되면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며, 반면에 '쾌락'이라는 가치에서 보게되면 "흡연은 심심할 때 좋다."라는 신념을 갖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대상을 어떤 조망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적 신념이 생성되거나 또는 부정적 신념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개인내에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그가 정적 태도의 조망과 부정적 태도의 조망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망의 확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조망의 확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태도가 대립되는 상대방의 조망을 자기의 조망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조망의 확대는 개인간에서 갖고 있던 조망을 개인내에서 갖게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발달이론가들은 조망의 확대가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또는 역할수용(role taking)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았다(Selman, 1980). 역할수용이 어떻게 조망확대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이수원과 이해경(1991)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조망수용 또는 역할수용은 타인의 역할 또는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입장에서 주어진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태도가 개인적 성향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며 그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제까지 그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향 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태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처한 입장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조망이나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얻게되는 체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기자신도 그와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태도에 대한 이와같은 깨달음은 자기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게 한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자기자신의 태도도 자신의 입장에 구속되어 얻어진 산물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할수용을 통해서 타인의 역할을 하다보면 자신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역할수용의 기능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이 갖고있는 태도가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지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에서 '입장'과 '개인'을 분리해서 지각하게 만든다. 여기서 '입장'은 개인이 처한 역할, 지위 또는 사회적 범주와 같은 것들을 일컫는다.

이수원(1994)은 사람들이 특정한 역할관계에 맥락화되어 얻어진 타인에 대한 모습을 그의 실재의 모습으로 '절대화'하여 지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현상은 타인을 지각할 때 역할과 개인을 분화하지 못하고 역할을 개인으로 동일시하여 지각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지각자의 자아정체가 사회정체 즉, 역할이나 지위로 동일시되어 있을 때 빚어진다. 이 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각자는 자기의 역할행동을 자기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역할행동도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망수용 또는 역할수용은 '역할'과 '개인'을 분리해서 지각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타인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에서 '개인정체'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아정체가 이렇게 개인정체로 동일시됨으로서 이제까지 자신의 '자아정체'였던 사회정체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자아

정체가 사회정체에서 개인정체로 바뀔으로서 태도 대상을 인식하는 조망이 바뀌게 된다. '개인정체'가 인식의 주체로서의 조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조망이 바뀔으로서 이제까지 조망이었던 '사회정체'를 '자기' 밖에 존재하는 인식의 대상으로 '대상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사회정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정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정체도 반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와 타인의 사회정체를 반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 절에서 말한 인식의 '절대화'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인식의 절대화는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태도대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태도대상이 그와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와같은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상태에서는 자기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자기 태도가 옳고 상대 태도가 그르던지 아니면 이와 반대가 되든지간에 양단간에 결판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조망수용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개인들이 처한 역할이나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함으로서 이와같은 인식의 절대화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두 태도가 주어진 태도대상을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이 바뀌면 태도도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조망에 의해서 빚어진 상대적인 것임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중에 어느 한 쪽은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태도가 조망을 달리할 때 나타나는 조망의 산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처럼 옳다-그르다 차원에서 판별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두 태도가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동시에 옳다는 것은 각자의 조망에 국한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정적 태도의 조망에서 볼 때에는 정적 태도가 옳으며, 부적 태도의 조망에서 볼 때에는 부적 태도가 옳다. 따라서 이 두 태도를 부분적으로는 모두 옳은 것으로서 받아들임으로서 이들을 양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양립은 이들이 서로 다른 조망에서 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

조망수용이 이렇게 태도의 차원표상을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우리의 교실에서 최근에 이루어졌다. 강재연(1995)은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에서 피험자들에게 자신들의 태도와 대립되는 역태도 역할(counter-attitudinal role)을 맡김으로써 역할놀이를 통한 태도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때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고유도집단에게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태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사고차단집단에게는 다른 과제를 시켜 역태도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 결과 사고유도집단에서는 친태도의 준거신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태도의 준거신념들이 증가하였다. 즉, 신념구조에서 누적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고차단집단에서는 이와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와함께 사고유도집단에서는 태도의 차원표상이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뀌었다. 이 집단에서 정적 태도, 부적 태도, 기강 가치 및 인권가치의 네가지 점수간에 상호 상관이 실험처치전에는 모두 높게 나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양극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실험처치 후에는 정적 태도와 기강가치의 상관과 부적 태도와 인권가치의 상관만이 유의미하게 나와 두 태도의 관계가 이원구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

고차단집단에서는 이와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집단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관계가 이원구조모델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처치 후에 자료를 가지고 공변량분석을 한 결과 사고유도집단의 태도는 이원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으나 사고차고집단의 태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역태도에 대한 조망수용은 태도의 차원구조를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꾸어주는 기제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태도구조와 태도적 감정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이 확대되면 그의 태도의 차원표상이 이원구조를 갖게 된다고 앞 절에서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서 양립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개인내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공존하게 되면 이 때 그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태도가 중립화(moderation)된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신념복잡성과 관련된 연구들로부터 나타났다.

앞에서도 인용한 Linville(1982)은 신념구조가 복잡할 때는 단순할 때보다 태도가 중립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신념구조가 단순할 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 속성차원(예, 근면)에서 드러난 좋은 면을 가지고 다른 속성차원(예, 유능)에 까지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태도가 극단화 되지만, 신념구조가 복잡할 때에는 이와같은 일반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념구조가 복잡할 때에는 대상을 다양한 속성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한마디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말할수 없게 된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이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대해서 복잡한 신념구조를 갖고 있

다는 점에 착안해서 여러가지 태도주제에서 내집단에 대한 태도와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외집단에 대해서 보다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Tetlock(1989)도 정치적 신념에서 신념복잡성과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에 어느 쪽이 보다 다각적인 시각 즉,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통합적 복잡성(integrative complexity)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구조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서, 특히 중도에서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은 사람 중에서 통합적 복잡성이 높게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태도와 신념복잡성의 관계가 '컵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곡선적인 관계임을 뒷바침해 준다. 태도가 중립일 때 신념구조는 가장 복잡해지며, 양극단으로 갈 수록 단순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태도극단성과 신념복잡성간의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Tesser(1978)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의 태도가 극단화(polarization)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사고과정 중에 일어나는 인지생성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해석대로라면 사고과정을 통해서 신념들이 많이 생성될수록 즉, 신념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태도가 극단화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Judd와 Lusk(1984)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신념들간의 이질성의 정도에 따라 이 관계가 달라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신념들에 기저하는 차원들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때는 신념구조가 복잡할 수록 태도가 중립화되지만,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신념구조가 복잡할 수록 태도가 극단화된다는 것

이다.

여기서 신념들에 기저하는 차원들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이들 신념들이 동질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신념들이 합쳐질 때는 누가 효과(additive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태도가 극단화된다. 반면에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이들 신념들이 이질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신념들이 합쳐질 때는 평균효과(average effect)가 나타나게 되어 태도가 중립화되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물음인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한 개인 내에 공존할 때에는 그의 태도가 '중립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적 태도의 준거신념과 부정적 태도의 준거신념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성질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종류의 준거신념들을 합치게 되면 평균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립적 태도의 성질에 있다. 정적도 부정적도 아닌 중립적 태도란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중립적 태도를 갖게되는 원인을 대체로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Eagly와 Chaiken, 1993).

첫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 태도대상에 대해서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을 동시에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적이 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태도대상에 대해서 갖고있는 신념들이 중립적인 신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태도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거나 애초부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적이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이 세가지 경우는 비록 겉으로 표현된 태도는 같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담고 있다. 사실 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을 동시에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적이 되는 경우와 태도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양자는 겉으로 표현된 태도는 동일시하지만 그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태도가 중립화되기 보다는 양가감정(ambivalent affect)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Caciopo & Berntson, 1994). 여기서 양가감정은 한 대상에 대해서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함께 갖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Abelsen, Kinder, Peters 및 Fiske(1982)는 정치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양가감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따로 측정했을 때 그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그를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양가감정을 갖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가감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앞서도 인용한 Katz(1981)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양가감정이 주로 장애인이나 소수집단과 같은 낙인받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양가감정의 개념은 동일인물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낌으로서 야기되는 갈등을 문제삼는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양가감정을 갖게 되면 두 감정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가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대상과 비교할 때 보다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경향성을 반응의 증폭화

(amplification)라고 이름 붙였다. 반응의 증폭화는 낙인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취하는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자기개념의 위협으로부터 야기된다. 낙인받은 사람에게 대한 비호의적 반응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호의적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인도적 인물'로서의 자아상이 위협을 받게 되며, 한편 호의적 반응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비호의적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냉철한 인물'로서의 자아상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자아개념에 대한 위협은 긴장을 낳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사람들이 한 대상에 대해서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되면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비밀관성을 느끼게 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아방어 기제중에 하나인 '반동형성'과 같은 일종의 병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의 이와같은 생각은 기존의 신념 복잡성에 관한 연구 특히, 통합적 복잡성에 관한 연구결과들과 정면으로 상치된다. 앞에서 인용한 Tetlock(1986)은 통합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 즉, 정적 신념과 부정 신념을 함께 통합하여 갖고 있는 사람은 통합적 복잡성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자국시장의 개방과 국내산업의 보호 및 국가치안의 유지와 개인의 권리보호와 같은 딜레마에서 통합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양쪽의 가치를 모두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반면에 통합적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한쪽의 가치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통합적 복잡성이 높을 때는 태도주제에 대해서 양가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같은 양가감정이 병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주제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

록 만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양가감정의 상태를 오히려 주어진 태도주제를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태로 이해하였다.

사실 한 개인내에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쌍방이 각각 가지고 있던 태도들을 한 개인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간에서 갖고 있던 태도들을 개인내에서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어진 태도대상을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한 개인내에 공존할 때 그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중립화'된다는 견해와 '양가감정'을 갖게 된다는 견해는 모두 주어진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견해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의 공존상태를 태도대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와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들며, 후자의 견해는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한 개인내에서 갈등을 하여 자기개념이 위협을 느끼는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들 견해들이 왜 이와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견해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정들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가 공존할 때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기존의 태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기존의 태도차원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양극으로 하는 양극적 평정척도(bipolar rating scale)를 일컫는다. 이 척도상에서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의 공존상태를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태도가 중립화된다는지 또는 양가감정을 갖게 된다는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의 공존상태를 태도의 양극적 평

정척도상에서 기술하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양극적 평정척도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는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적일 때에는 적절한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이원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의 태도를 기술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공존상태를 어떻게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다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평정척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양극적 평정척도는 정적 태도에서 부적 태도까지 태도가 양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태도대상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무관심하여 비태도(nonattitude) 상태라든지 또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는 이와같은 척도상에서는 표현될 수 없다. 그리하여 최근에 Cacioppo와 Berntson(1994)은 태도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비태도 상태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를 기존의 양극적 태도차원과는 독립된 차원상에서 기술하는 태도의 차원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형에서도 한 개인내에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이 공존할 때에는 양가감정을 갖는다고만 언급하였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전개시키지 못하였다.

필자는 그동안 발표한 몇몇 논문에서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내에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공존하게 되면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서술적 의미에서 인식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이수원, 1988, 1990). 서술적 의미는 원래 언어학에서 정보적 내포(informative connotation)와 감정적 내포(affective connotation)로 표현되는 낱말의 의미의 이중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심리학에

이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Peabody(1967)이다. 그는 정보적 내포를 서술차원(descriptive dimension)의 의미로, 감정적 내포를 평가차원(evaluative dimension)의 의미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의 차이는 어떤 낱말이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난다. '하늘'이나 '책상'이라는 낱말은 그 자체 아무런 평가적인 뜻이 없이 다만 어떤 사물 또는 사물의 양태를 지칭 또는 기술할 뿐이다. 이에 반해서 '정직'이나 '불순'이라는 낱말은 좋거나 나쁘다의 평가적인 뜻을 갖고 있다. 또한 어떤 낱말 예컨대, '쓰레기'나 '암'과 같은 낱말은 객관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동시에 평가적인 뜻도 함축하고 있다. 쓰레기나 암은 가능한 한 없으면 좋은 것이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으로 인식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주어진 낱말의 평가적 의미는 그것의 지칭적 의미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떤 낱말의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낱말의 평가적 또는 서술적 의미 중에 한쪽 의미만이 강조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똑같은 낱말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기술하는 낱말들은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미 즉,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모든 가치에는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서술적 의미는 개개의 가치들이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컨대, '정의' 가치의 서술적 의미는 '정의'와 '인도'의 의미의 차이를 비교할 때 '인도'와 다른 내용을 지칭한다는 뜻으로서의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개별적 가치들의 내용에서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평가적 의미는 개개의 가치가 함축하고 있는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의 정도를 나타낸다. '정의' 가치의 평가적 의미는 '정의'와 '불의'의 의미의 차이를 비교할 때 드러난다. 이 두 가치에

서 지칭하고 있는 가치의 내용은 같다. 다른 점은 전자는 옳고 좋으며, 후자는 그르고 나쁘다. 즉, '정의'가치의 평가적 의미는 '옳다-그르다'나 '좋다-나쁘다'차원에서 '정의'가치가 갖는 의미이다(이수원과 신현숙, 1986).

그런데 여기서 양극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가치의 의미중에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반면에 이원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태도대상을 지각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양극구조에서는 사람들의 조망이 정적 태도의 준거가치와 부정적 태도의 준거가치 중에 어느 한쪽 준거가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그들의 조망이 평가차원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준거가치가 '정의'가치(불의하다-정의롭다)이며,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인도'가치(비인도적이다-인도적이다)이다. 따라서 그들은 태도대상을 '불의하다-정의롭다'나 '비인도적이다-인도적이다'의 평가차원에서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자의 가치에서 볼 때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으로서 옳고 좋은 것이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서 그르고 나쁜 것이다. 후자의 가치에서 보게 되면 이와 반대가 된다. 이 때에는 '정의'가치나 '인도'가치의 의미가 평가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평가적 의미로만 쓰이는 '정의'나 '인도'가치를 조망으로 해서 지각되는 태도대상은 자연히 평가적 의미로서 기술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정적 태도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구조에서는 가치의 의미가 서술적 의미로 쓰여진다. 이 때에는 사람들이 정적 태도의 준거가치와 부정적 태도의 준거가치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태도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가치의 서술적 의미가 살아난다. 위의 예에서 '정의' 가치와 '인도' 가치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지각하는 사람은 '사형제도를 시행

하는 것'은 정의롭기는 하지만 비인도적이라고 보게 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이지만 불의하다고 보게 된다. 즉, 이 때에는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정의'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제도인 반면에 후자는 '인도'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제도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정의 가치와 인도 가치의 지칭적 또는 서술적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가치의 서술적 의미가 살아난다는 말은 가치를 평가적 의미로 쓸 때에는 가치의 서술적 의미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가치를 평가적 의미로만 쓸 때에는 모든 가치들의 의미가 모두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환원된다. 이때 가치들간의 서술적 의미에서의 차이는 모두 무시된다. '정의'와 '인도'는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며 마찬가지로 '불의'와 '비인도'도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취급된다. 여기서 '정의'와 '인도'가 종류가 다른 가치를 지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술적 의미로 관심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서술적 의미로 쓰이는 '인도'나 '정의' 가치를 조망으로 해서 얻어지는 태도대상의 의미도 자연히 서술적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태도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는 대상의 의미도 서술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개인내에 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태도대상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평가적 의미에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태도 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와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의 차이는 전자는 주어진 대상을 '정의

롭다' 또는 '인도적이다'와 같이 가치속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반면에 후자는 '좋다' 또는 '나쁘다'와 같이 호오속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후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이며, 폐지하는 것은 나쁜 것(또는 좋은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정의와 인도중 어떤 가치가 보다 중요한가 즉, '가치선호'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사형제도의 시행과 폐지중 어떤 제도가 보다 좋은가 즉, '호오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에는 개인의 찬반태도가 가치선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인도'가치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는 인도가치를 구현시켜 주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반면에 '정의'가치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는 정의가치를 구현시켜 주는 '사형제도의 시행'을 찬성하게 된다. 개인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태도이론가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드려져 온 가정인 모든 개인들의 태도를 호오차원상에서 특정한 하나의 점으로써 대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맞지 않게 된다. 개인의 태도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호의적인 것으로 부터 비호의적인 것으로 까지 변화된다면 이와같은 태도를 하나의 점으로써 대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에는 개인의 찬반태도가 대상에 대한 호오평가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태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의 태도를 호오차원상에서 특정한 하나의 점으로써 대표시킬 수 있다. 이 때에

는 앞에서도 말한 인식의 '절대화' 때문에 자기가 그와같은 태도를 갖게 된것이 태도대상 자체가 그와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주어진 대상에 대한 태도는 바뀔 수가 없다. 그러나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에는 개인의 태도가 조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조망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도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최근에 우리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수원과 박광엽(1989)은 피험자들에게 여러가지 사건을 제시한 후 그들이 어떤 조망에서 이들 사건을 지각하는가에 따라 공정가치를 선호하는 '공정조망', 인정가치를 선호하는 '인정조망' 및 공정과 인정의 양쪽 가치를 동시에 선호하는 '확대조망'의 세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들에게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이를 '적발하는 행위'와 '묵과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의 조망축소 집단에서는 태도가 극단화되었다. 공정조망에서는 적발행위에 대해서는 정적이며 묵과행위에 대해서는 부적 태도를 보였다. 인정조망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반면에 확대조망집단에서는 태도가 중립화되었다.

그러나 물음을 달리해서 이 두 행위가 각각 얼마나 공적인 행위인가 혹은 사적인 행위인가를 판단시켰을 때는 확대조망집단에서는 적발행위를 공적으로, 묵과행위를 사적으로 양극에서 극단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조망과 인정조망 집단에서는 판단이 중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조망확대집단은 주어진 행위들을 평가차원에서 보다는 서술차원에서 더 잘 변별을 하는 반면에 조망축소집단은 서술차원보다 평가차원에서 더 잘 변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전자에서는 주어진 행위에 대한 판단이 사적-공적의 서술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좋다-나쁘다의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망확대 수준을 실험적으로 직접 조작하였을 때에도 나타났다. 이수원과 김태준(1988)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개 기르기'에 대한 태도주제에서 조망확대 처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조망확대 처치는 수업시간에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학습주제를 내걸고 개기르기를 반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역할놀이를 시킴으로서 이루어졌다. 역할처치 전에는 개기르기에 대해서 찬성조망 즉, '놀이'가치에서만 보던 아이들이 역할처치 후에는 반대조망 즉, '일' 가치에서도 보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역할처치전에는 개를 기르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안기르는 것은 나쁜 것으로만 보다가, 역할처치 후에는 개를 기르는 것은 재미있고 즐겁지만, 그대신 안기르는 것은 깨끗하고 편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개를 기르는 것을 놀이감-일거리의 서술차원에서 보게 되었다.

한편 조망확대 수준에 따라 태도의 상황가변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났다. 이수원과 박영석(1988)은 학생의 교복에 대한 태도형성에서 아동과 성인간의 준거가치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동은 '개성' 가치와 '질서' 가치 중 어느 한 쪽 가치에 준거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성인은 이 두 가지에 모두 준거해서 태도를 형성하였다. 즉, 아동은 조망이 축소되어 있는 반면에 성인은 조망이 확대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렇게 아동과 성인간의 조망확대 수준에서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태도의 상황가변성이 달라진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질서가 문제시되거나 또는 개성이 문제시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교복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을 때 축소 조망을 가진 아동은 상황에 불문하고 자기의 태도를 고집하는 반면에 확대조망을 가진 성인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다.

최근의 박광엽(1995)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는 기업조직의 임금제도로서 연공서열제와 능력급제는 각각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전자는 '인화'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능률'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하여 피험자들을 '인화'를 중시하는 인화조망집단, '능률'을 중시 여기는 능률조망집단, 및 인화와 능률을 동시에 중시하는 확대조망집단의 세 집단을 분류하여 이들에게 연공서열제와 능력급제에 대한 태도를 물어 보았다. 이 때 기업이 직면한 상황으로 능률의 향상이 위급한 상황과 인화의 도모가 시급한 상황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인화조망과 능률조망집단에서는 상황에 불문하고 자신들의 태도를 고집하는 반면에 확대조망집단에서는 능률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급제를 그리고 인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연공서열제를 선호하여 태도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맺는말

이상에서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에 대한 개인의 차원표상이 양극적인가 또는 이원적인가 하는 것이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개인의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양극적으로 표상하지만, 확대되어 있을 때는 이원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개인의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태도대상의 지각에서 인식의 '절대화'가 일어나 자기의 태도가 자신의 조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태도대상 자체가 원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의 태도가 태도대상으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조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자기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써 배척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보기 때문에 정적 태도와 부

적 태도를 양극적으로 대립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조망이 확대되면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원래 양립적인 관계임을 보게 된다. 조망의 확대는 자기와 태도가 대립되는 상대의 입장에서 태도대상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대상을 보게 되면 자신의 태도가 태도대상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장에 구속되어 얻어진 것임을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면 자기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와 상대의 태도가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와같은 인식의 전환은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두 태도가 각각 시각을 달리하여 볼 때 얻어지는 것으로써 각각의 시각에 국한해서 볼 때에는 모두가 옳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태도가 부분적으로는 모두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양립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내에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가 양립하게 되면 이 때 개인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물음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조망이 확대되면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이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만 조망이 확대되면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게 된다.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가치의 평가적 의미 즉, '좋다' 또는 '나쁘다'로 인식하는 것이며, 서술적 의미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가치의 서술적 의미 즉, '정의롭다' 또는 '인도적이다'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평가적 의미로 인식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이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나쁜 것(또는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서술적 의미로

인식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찬반 의사결정이 '호오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가치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망이 확대되면 태도대상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이 가치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 나타나게 된다. 개인의 태도가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이 '정의' 가치를 요구한다고 볼 때에는 사형제도의 시행에 찬성을 하고, 한편 '인도'가치를 요구한다고 볼 때에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를 '태도'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종래의 태도개념에서는 개인의 태도를 호오차원상에서의 특정한 하나의 점으로서 규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태도는 이미 '태도'가 아닌 것이다. 태도이론가들은 전통적으로 태도를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n)중의 하나로써 간주하였다(Allport, 1935). 개인의 성향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반응이 수시로 달라진다면 그에게 일정한 성향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면 그에게는 '성향'으로서의 태도는 없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태도연구들에서 개인의 태도가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한다는 결과들이 얻어졌다. 토론 예기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태도가 토론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주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태도의 일시적 이동현상이나(Cialdini, Levy, Herman & Evenbeck, 1974), 태도주제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만 하여도 태도가 극단화되는 단순사고 효과나(Tesser, 1978), 타인의 역할을 수행해 보도록 요구만 하여도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는 역할놀이 효과(Janis & King,

1954)는 모두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태도가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조망이 확대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성향으로서의 '태도'는 없는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바뀌는 '태도'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기초한 태도'는 '성향에 기초한 태도'보다 자아관여(ego involvement)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성향에 기초한 태도에는 '자아'가 개입되어 있지만 상황에 기초한 태도에는 '자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상황에 기초한 태도는 상황의 요구에 쫓아서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태도는 개인의 성향으로서의 종래의 태도개념으로 볼 때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태도를 반응수준으로 개념화하게 되면 상황에 기초한 태도도 '태도'로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상황에 쫓겨서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태도대상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태도의 '발달'을 문제 삼으려 하였다. 태도의 변화에는 기존의 태도이론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호오차원상에서 '양적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질적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태도대상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그들의 이해관계 즉, 축소된 조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태도는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낳은 편파된 지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발달연구에서는 일찍부터 개인의 조망이 발달과정을 통해서 확대된다는 결과를 얻었다(Selman, 1980). 따라서 태도에서도 이와같은 상태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태도에서 조망의 확대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발달이론가들은 조망의 확대가 조망수용 또는 역할수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태도에서 조망수

용 또는 역할수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본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태도변화 연구에서 다룬 태도변화치치이다. 기존의 태도변화 연구에서는 태도변화치치의 효과를 태도의 양적 변화 즉, 호오차원상에서의 위치의 이동에 치중해서 분석하였다. 태도구조에서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태도의 '변화'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태도의 '발달'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도변화치치는 태도의 방향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태도의 구조에서의 변화 즉, 질적 변화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태도변화치치는 그 성질상 역태도 주장(counter-attitudinal arguments)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실험자들은 태도변화치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태도변화치치는 태도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역태도 정보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조망의 확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절에서 언급한 이수원과 이영훈(1989)의 태도 면역에 관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태도와 반대되는 신념을 제공하고 이를 반박하도록 하였을 때 그들의 태도구조가 이원구조가 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미국인에 대한 신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체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누적적으로 변화된다는 차재호 등(1987)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태도변화 치치가 조망의 확대를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태도변화 연구들이 모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에 관한 태도변화 실험에서는 태도변화가 누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교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태도변화 치치가 조망의

확대를 유발하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태도변화 처치가 언제 교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언제 누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태도변화의 이중통로 이론을 제시한 Petty와 Cacioppo(1986)의 연구는 이에 대한 일말의 시사를 준다. 이들은 태도변화가 중심통로와 주변통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중심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설득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태도주제에 대한 새로운 인지반응을 생성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인 반면에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설득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설득자의 특성이나 설득의 횟수와 같은 주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볼 때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신념구조에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반면에 중심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신념구조에서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주변통로에 의한 태도변화와 중심통로에 의한 태도변화는 태도구조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구조로 나타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이원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예상의 타당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때 태도에서 조망확대의 기제가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재연(1995). 역할놀이가 태도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구정숙(1994). 정적 태도와 부적 태도의 독립성과 기능차별성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은영(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

8권 2호, 3-33.

박광엽(1995). 조직 갈등에서 조망확대의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수원(1983). 태도내 변산과 태도의 구조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1권 2호, 179-203.

이수원(1988). 태도에서의 감정과 인지성분의 측정, **심리학의 연구문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제3호, 161-191.

이수원(1990). 내면화 : 사회적 지식의 형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9권 1호, 54-73.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3권 1호, 129-152.

이수원(1994). 태도의 구조변화와 의식개혁,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논문집**, 한국심리학회.

이수원, 김태준(1988). 조망과 태도 : 태도의 변형생성 모형,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7권 2호, 75-95.

이수원, 김태준(1990).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 사건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5권 1호, 10-23.

이수원, 박광엽(1989). 조망의 확대와 평가의 보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제4권 2호, 33-49.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4권 1호, 155-181.

이수원, 신현숙(1986). 태도의 차원구조: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6권 3호, 181-192.

이수원, 이영훈(1989). 태도의 면역기제 : 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제8권 1호, 67-87.

이수원, 이해경(1991). 역할과 개인의 분리 : 역할수용의 한 기제,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9집, 81-109.

차재호, 구정숙, 나은영, 정지원(1987). 서울대

- 신입생의 반미태도의 사회화, **학생연구, 서울대**, 22, 22-37.
-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19-630.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798-844), Worcester, MA : Clark University Press.
- Cacioppo, J. T., & Berntson, G. G.(1994).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evaluative space: A critical review, with emphasis on the separabi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substrates, *Psychological Bulletin*, 115, 401-423.
- Cialdini, R. B., Levy, A., Herman, C. P. & Evenbeck, S.(1974). Attitudinal politics : The strategy of mode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00-108.
- Eagly, A. H., & Chaiken, S.(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Harcourt Brace.
- Festinger, L.(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reenwald, A. G.(1989). Why attitudes are important: Defining attitude and attitude theory 20 years later.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ture and function*(pp 429-440), Hillsdale, NJ: Erlbaum.
- Goldstein, M. D., & Strube, M. J.(1994). Independence revisited :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in naturalistic set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202-21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ovland, C. I., Janis, I. L., & Kelley, H. H. (1953).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 Hymes, R. W.(1986). Political attitudes as social categories: A new look at selective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33-241.
- Janis, I. L., & King, B. T. (1954). The influence of role playing on opinion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211-218.
- Judd, C. M., & Kulik, J. A.(1980). Schematic effects of social attitudes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rec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569-578.
- Judd, C. M., & Krosnick (1989). The structural bases of consistency among political attitudes : Effects of political expertise and attitude importance.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99-128), Hillsdale, NJ: Erlbaum.
- Judd, C. M. & Lusk, C. M.(1984). Knowledge structures and evaluative judgements : Effects of structural variables on judgmental extre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193-1207.
- Kandel, D.(1978). Homophily, selction and

- socialization in adolescent friendsh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427-436.
- Katz, I.(1981). *Stigma :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Hillsdale, NJ:Erlbaum.
- Katz, I., & Hass,R.G.(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erlinger, F. N.(1984).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e nature and structure of social attitudes*. Hillsdale, NJ: Erlbaum.
- Knuegel, J. R., & Smith, E. R.(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Kristiansen, C. M., & Zanna, M. P.(1988). Justifying attitudes by appealing to values: A functional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247-256.
- Liberman, S.(1950). The effects of changes in roles on the attitudes of role occupants. *Human Relation*, 9, 385-403.
- Linville, P. W.(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Mannheim, K.(1936). *Ideology and Utopia :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 Harcourt, Brace.
- Moscovici, S. (1985). Innovation and minority influence. In S. Moscovici, G. Mugny, & E. Van Avermaet (Eds.), *Perspectives on minority influence*(pp. 9-5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comb, T. M.(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 Attitude formation in a student communit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Parsi, N., & Katz, I.(1986). Attitudes toward posthumous organ donation and commitment to donate. *Health Psychology*, 5, 565-580.
- Patchen, M., Hofman, G., & Davidson, J. D.(1976). Interracial percep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Sociometry*, 39, 341-354.
- Peabody, D.(1967). Trait inference :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7, (Whole No. 644).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of attitude change*. New York : Springer-Verlag.
- Pratkanis, A. R. (1989).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ttitude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fie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71-98). Hillsdale, NJ: Erlbaum.
- Schofield, J. W.(1991). School desegregation and intergroup relations. In G. Grant(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Vol. 17, 335-409).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Selman, R. L.(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Sherif, C. W., & Sherif, M.(1967). *Attitude, ego-involvement, and Change*. New York: Wiley.

- Smith, M. B., Bruner, R. W., & White, R. W. (1956).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Sokol, M., & Louis, M. R. (1984). Career transitions and life event adaptation, In V. A. Allen & van de Vliert (Eds.), *Role Transitions ; Explorations and Explanations*. New York, Plenum
- Tesser, A. (1978). Self-generated attitude 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1, 289-338).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Tetlock, P. E. (1986). A value pluralism model of id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19-827.
- Tetlock, P. E. (1989). Structure and function in political belief system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s structure and function* (pp. 129-151). Hillsdale, NJ : Erlbaum.
- Thomas, W. I., & F. Znaniecki. (1918).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Boston: Badger
- Thompson, M. M., Zanna, M. P., & Griffin, D. W. (1994). Let's not be indifferent about ambivalence.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Hillsdale, NJ : Erlbaum
- Thurstone, L. L. (1931).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6, 249-269.
- Tourangeau, R., Rasinski, K. A., & D'Andrade, R. (1991). Attitude structure and belief access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48-75.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 Concept ;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 : Theory and Research*, Vol. 2, Greenwich, JAL Press.
- van der Pligt, J., & Eiser, J. R. (1984). Dimensional Salience, Judgment, and Attitudes. In J. R. Eiser (Ed.), *Attitudinal judgement* (pp. 161-177). New York: Springer - Verlag.
- Walsh, R. H., Ferrell, M. A., & Tolone, W. L. (1976). Selection of reference group, perceived permissiveness of reference group and personal permissiveness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95-507.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From Bipolar Structure to Dual Structure: The Development of Attitude Structure.

Soo-W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raditionally,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are conceptualized as falling on the opposite sides of an uni-dimensional evaluation scale. In other words, they are conceived as mutually exclusive aspects of the evaluation processes. Recently, however, a few relevant studies on this issue suggested that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s are independently determined by the dual-dimensional evaluation processes. In the present paper, I argue that the nature of one's perspective determines whether an individual adopts an uni-dimensional evaluation process or a dual-dimensional one. When one's perspective is narrowly restrained, one's attitude is determined by an uni-dimensional evaluation process. In contrast, when one takes on an expanded perspective, he or she adopts a dual-dimensional evaluation process in determining his/her attitudes. The expansion of perspective also change the focal dimension of the evaluation process: from favorableness judgment to informative description. A critical review of relevant studies supports the argument.